

지속적인 도농교류의 조건에 관한 고찰 -일본의 세타가야구(世田谷区)와 가와바촌(川場村) 사례를 중심으로-

배 중 남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A Study on the condition for the Sustainable Exchanges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Focused on the case of Setagaya Ward and Gawaba Village in Japan-

Jung Nam Bae
Dept. of Tourism, Sangji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necessary resources in developing the sustainable project of the exchanges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in Korea. And so I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model of the Setagaya Ward and the Gawaba Village in Japan, which has successively continued the exchanges between city and rural areas for thirty years, with the documentation, field work, interviews and field investigation. The two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promoted the project of the exchanges between cities and rural areas by keeping in touch with a making the second home and linking agriculture with sightseeing. They passed an agreement of mutual help and established regulations to push forward the agreement in order to carry out the agreement. And they have operated a section which will do nothing but focus on this, established a management company which takes charge of the stronghold facilities of the exchange between city and rural areas, operated a caucus to examine the project steadily and to develop new programs, and made a publicity work continually for thirty years. In conclusion, I think we should promote the joint capital stronghold facilities of the exchange between city and rural areas which is based upon the agreements. And we should promote the infrastructure like a management company which takes charge of the facilities and build the proper foundation which can develop the various programs for the exchange between city and rural areas and operate them.

Key words : Agreement, Conference, Management Company, Regulations, Stronghold Facilities

1. 서 론

최근 소득증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민들의 여가소비 패턴의 변화와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농어촌 체험관광으로 대표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임상봉 2004).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에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농교류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 및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농교류 촉진 특별법’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도농교류활동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도농교류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경험과 실천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몇몇 선진사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도농교류 사업은 대부분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개별적이고 형식적이며 대등한 관계의 교류가 아니라는 비판(임상봉, 2004)과 도농교류의 양방향

Corresponding Author : Jung Nam, Bae
Tel : 033-730-0321
E-mail : jnbae02@sangji.ac.kr

성과 지속성이라는 본래의 의미와는 유리된 일방적 방문이나 농촌 일손 돕기, 특산물 구매 등 한정된 현실은 진정한 교류도 아니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유정규, 2006). 이에 더해 유정규(2008)는 도농교류의 개념정립과 발전방향, 도농교류가 지닌 소모성 이벤트, 지나친 경제주의, 추진인력과 조직 문제, 조직육성과 제도적 기반정비 미흡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도농교류에 관한 시각의 재정립, 도농교류 관련 기구나 단체의 기능 강화, 도농교류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역경제구조와 농업구조의 유사성 측면에서 일본의 지속적인 도농교류의 사례연구는 그 시사점이 높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도농교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도농교류 실현에 필요한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30년간 도농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선진사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도농교류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 도농교류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서 교류(interchange)는 '무엇인가를 교환 또는 주고받는 것으로 서로 다른 무엇과 무엇을 접촉하는 것이나 혹은 대등·호혜의 원칙 하에서 상호간에 인적·물적·문화적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 한다(김병렬 등 2000). 도농교류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도농간의 교류', '도농녹색교류', '녹색관광', '농촌관광'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린투어리즘이나 농촌관광과의 개념적인 관계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다(임상봉, 2004). 도농교류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물적, 서비스, 정보와 문화를 인간적 신뢰감을 가지고 상호대응·호혜의 원칙하에 양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교환·제공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공생을 위한 상호작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Table 1).

일본에서 도농교류는 이미 오래전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황폐화 등의 농촌사회위기와 1987년 리조트법 제정 이후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반성의 일환으로 나타났다(이용진, 2000). 일본의 도농교류는 대다수 국민이 장기 체재형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개발과 국토 보전,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공공의 책임에서 새로운 관광개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일본의 도농교류는 양방향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과 대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과 대류'란 '도시와 농산어촌 간에 서로의 매력

Table 1 도농교류의 개념에 대한 정의

연구자	도농교류의 개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08)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함
유정규 (2006)	상호 대등/호혜의 원칙 하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무엇인가를 교환 또는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인간적인 신뢰를 중심으로 한 사람, 물건, 정보의 교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을 말함
송미령 (2003)	사람, 동물,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 여러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만족을 얻고자 하는 방식을 말함
한국농공학회편 (2003)	사람, 동물,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 도시와 농촌간의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농촌의 특산물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농어촌연구원(2002)	도시와 농촌의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토해 사람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정보·자본서비스 등이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을 말함
김병렬의 (2000)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매력요소를 교환함으로써 서로간의 결핍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동등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혹은 공생관계를 만드는 것을 말함
이상배 (1995)	상호방문이나 산물의 판매를 위한 거래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활동뿐만이 아니라 교육문화적인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까지를 포함함

유정규(2006), 도농상생을 위한 도농교류의 의미와 활성화 전략, 저자 재정의

을 향유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를 구축해 사람·사물·정보가 도시와 농산어촌을 쌍방향으로 왕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일본 농림수산부).

2. 선행연구의 검토

차동욱(2007)은 도농교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연구, 재방문에 관한 연구,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고 있지만, 도농교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다는 견해(유정규, 2006)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농교류의 개념적 해석과 시행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도농교류에 관한 견해를 보여주는 연구에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이 상호대립과 분열의 관계가 되어 그 해결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공생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도농교류를 제시한 연구(소순열, 2006), 도농교류를 농식품의 직접마케팅과 농촌관광시장의 진화활동의 초기단계로 고찰한 연구(오현석 등, 2004), 소득과 취업 기회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연구(박진도 등, 2005) 등이 있다. 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달성을 위한 수단(정기환 외 2003 과 임경수, 2005),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와 농촌지역주민 교육에 관한 연구(김성태, 2006), 농촌관광마을 방문객 선호체험프로그램과 방문만족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윤유식·지경배, 2008) 등의 농촌관광과 도농교류를 동일시하는 연구가 있다. 이와같이 기존의 도농교류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견해를 지니고 있다.

도농교류에 관한 문제점(Table 2)을 제시한 연구로는 도농교류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고 도농교류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 연구(유정규, 2006)와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의 의미와 실태를 분석하여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의 과제를 제시한 연구(이응진, 2000)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도농교류 사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기보다는 도농교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농교류에 있어 양방향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인 리더에의 과도한 의존, 주체 형성의 미약과 기반 구축의 미흡에 따른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는 도농교류 관련 기구나 단체의 조성 및 기능 강화가 그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단순한 농촌체험, 민박위주로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경쟁지역의 급속한 증가로 지역적 독자성을 상실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

반정비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도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Table 2 우리나라의 도농교류/농촌관광의 문제

한국의 도농교류/농촌관광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의 지역리더에 대한 과도한 의존 ○ 지나친 행정주도에 따른 주체형성의 미약 ○ 단순한 농촌체험, 민박위주로 소득과 연계되지 못함 ○ 기반구축의 미비 ○ 경쟁지역의 급속한 증가로 지역적 독자성의 상실 ○ 지역자원의 효과적인 연계 미흡 ○ 구성원의 이질화에 따른 내부갈등의 증폭
유정규, 도농교류/농촌관광의 가능성과 한계, 유정규, 도농교류의 의미와 활성화 전략, 저자 재작성

3. 연구방법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 사례에 관한 문헌조사와 자치단체의 담당자들과의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세타가야구 구민건강촌이 조성되어 있는 가와바촌(川場村)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 및 면접조사는 2008년 7월에 일본의 도시측인 세타가야구 구청과 농촌측인 가와바촌 야쿠바(役場)를 방문하여 도농교류 사업에 관한 행정문건과 홍보책자 등을 수집 분석하였고, 면접조사는 세타가야구청 생활문화부 구민건강촌·고향교류과 과장 사카모토(坂本 雄治), 담당직원 하세가와(長谷川 桂一), 사카모토(松本拓) 씨와 도농교류 사업 추진 배경, 경위와 내용,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에 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또 가와바촌을 방문하여 도농교류 사업을 전담하는 (주)세타가야가와바 고향공사 영업부장 미야우찌(宮内明彦) 씨와 가와바촌의 마을만들기 진흥과 과장보 나카무라(中村雅治)를 면접조사 했고, 세타가야구와 가와바촌의 도농교류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와바촌에서 현지조사를 했다.

III. 대상지의 개요 및 도농교류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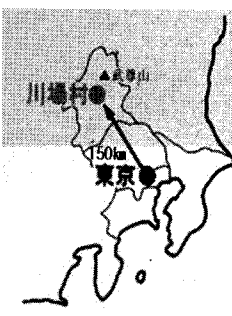
1. 대상지의 개요

세타가야구는 동경 서남단에 위치한 동경도 23구중 하나의 자치단체이다. 면적은 58.08km²이고 총세대수는 434,635이며, 총인구가 약 832,515명(세대당 1.92명)으로

비교적 가로수와 공원 녹지가 풍부한 살기 좋은 주택지역이다. 세타가야구는 고품화, 정보화, 국제화 등 급속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인간존중의 지역 만들기, 환경과 공생하는 사회, 구민자치의 확립을 기본이념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자치경영을 목표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와바촌은 동경에서 150km 거리에 위치한 군마현(群馬県) 북부지역의 해발2,158m의 오다카(武尊)산의 남사면에 선형으로 발달된 지역으로, 총면적 85.2km²중 83%가 산림인 산촌지역이다. 가와바촌은 농업과 관광을 연계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세타가야구에서 자가용, 셔틀버스, 신칸센, 기차와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약1시간 30분~3시간 사이에 도착할 수 있다(Table 3).

Table 3 세타가야구와 가와바촌의 위치와 접근성

위 치 도	교통수단		시 간
	자가용	고속도로 +국도	
	셔틀버스	구청에서 건강촌	180분 (주말)
	신칸센	신칸센 +버스	105분
	기차/전철 (上越線)	국철 +버스	150분
	시외고속	고속도로 +국도	180분 (1회/일)

2. 도농교류의 사업내용

가. 상호협력 협약(농조협정²⁾)체결

도시지역인 세타가야구는 1979년 4월 구 기본계획 중

7대 주요사업의 하나로 구민건강촌³⁾ 조성계획을 결정한 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세타가야구는 그해 11월에 지역 학자인 동경공업대학 스스키(鈴木忠義)교수와 세타가야구의 기획부 기획과, 시설부 시설계획과 행정직원들로 구성된 구민건강촌 조성계획 프로젝트팀을 발족하고, 1980년 관동(關東)지역 7개현에서 구민건강촌 입지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의뢰받아 후보지의 현지조사 및 상세조사를 통해 1981년 가와바촌을 선정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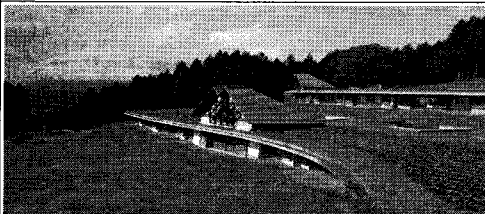
본 협정은 1981년 11월 동경도지사(대행 부지사)와 군마현지사를 입회인으로 하고 세타가야구 구청장, 세타가야구의회 의장, 가와바촌 촌장, 가와바촌의회 의장 간에 체결된다. 협정문에서는 구민건강촌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극복하여 미래를 건설해 가는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을 서약하고 있다. 특히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구민건강촌 조성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협정은 단순히 도시와 농촌의 교류만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서로 부부간의 인연이거나 형제간의 인연을 맺는 협정으로 협정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도농교류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 도농교류 거점시설 건립

1981년 협정이후 세타가야구와 가와바촌은 교류활동을 시작하면서 도농교류의 거점이 되는 시설 건립을 위해 건설 위치와 규모 등에 관한 조사를 착수하여 3~4년에 걸친 조사, 계획, 공사를 통해 구민건강촌을 건립한다.

구민건강촌은 “Table 4”와 같이 후지야마(富士)빌리지와 나카노(中野)빌리지 2개의 건축물로 구성되었다. 세타가야구가 가와바촌에서 토지를 매입 또는 일부 임대하여 세타가야구 구립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이동교실 운영과 세타가야구 구민의 도농교류 사업의 거점시설을 목적으로 건립된 교육 및 숙박시설이다. 구민건강촌은 단지 가와바촌이라는 농촌지역에 도시민만을 위한 시설

Table 4 구민건강촌 시설의 전경 및 개요

시설명	후지야마 빌리지	나카노 빌리지
전 경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면적 11만㎡, 연면적 5천㎡,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숙박실 29실, 수용인원 1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면적 15만㎡, 연면적 5천㎡,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숙박실 28실, 수용인원 105명

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도시민과 농민의 마음이 교류되는 시설을 조성한 것이다.

다. 구민건강촌 관리운영 전문기업 설립

세타가야구는 1986년 4월 건강촌 개촌과 더불어 시설의 전문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세타가야가와 바고향공사(이하, (주)고향공사로 함)를 설립한다. (주)고향공사 설립에 필요한 총 4천만엔 중 세타가야구는 3천만엔을 부담하고, 가와바촌은 1천만엔을 투자하는 형태로 공동출자한다. (주)고향공사는 구민건강촌 후지야마 빌리지에 위치하며 거점시설 운영을 전담하는 지정관리자이다. (주)고향공사는 이동교실 운영을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등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회사로 사회적 기업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종업원은 평균 근무연수가 13년인 정식직원 29명과 위촉 및 임시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고향공사는 20여년의 경험을 토대로 “Figure 2”와 같이 세타가야구와 가와바촌의 행정기관, 가와바 지역의 삼림조합, 가와바 지역의 지연상품의 발굴 및 동경농업대학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 가와바촌의 지역주민과 세타가야구 구민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건강촌 담당자에 의하면 세타가야구는 (주)고향공사의 유지관리비 연간 약 4억엔 정도를 세타가야구 구민건강촌 조례 제17조 지정관리자 제도에 의해 100% 부담하고 있다. 2007년도 순이익은 약 1,600만엔, 2008년도는 980만엔의 순이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순이익은 세타가야구와 가와바촌에 환원하여 지속적인 도농교류 사업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라. 구민건강촌 조례와 시행령 제정

세타가야구는 구민건강촌 개촌을 앞두고 1985년 11월 30일에 건강촌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세타가야구 구민건강촌 조례를 제정하고 1986년 5월에 세타가야구 구민건강촌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조례는 건강촌의 설립목적과 기본이념, 사업내용과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조례의 기본이념에서 세타가야구는 ‘구민건강촌 조성은 구민상호간의 교류와 가와바촌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2의 고향을 만드는데 협력하고, 가와바촌의 환경보전에 노력하면서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세타가야구와 가와바촌 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세타가야구의 조례 제정은 건강촌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유지, 시설관리·운영 전담회사의 안정적 활동과 이동교실운영,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활동, 문화활동과 농림업에 관한 체험활동 등 다양한 도농교류 사업내용을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축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마. 구민건강촌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체를 통한 모니터링

세타가야구는 구민건강촌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구청사 1층 홀에 구민건강촌 홍보코너를 설치 운영하면서 건강촌 신문 발행과 지역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구민건강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건강촌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세타가야구는 가와바촌과 (주)고향공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촌의 운영 및 관리, 이동교실 운영을 비롯하여 사과나무 임대사업, 산지직송, 스포츠 대회, 상호 이벤트 참가 등 도농교류 사업에 대해 다양한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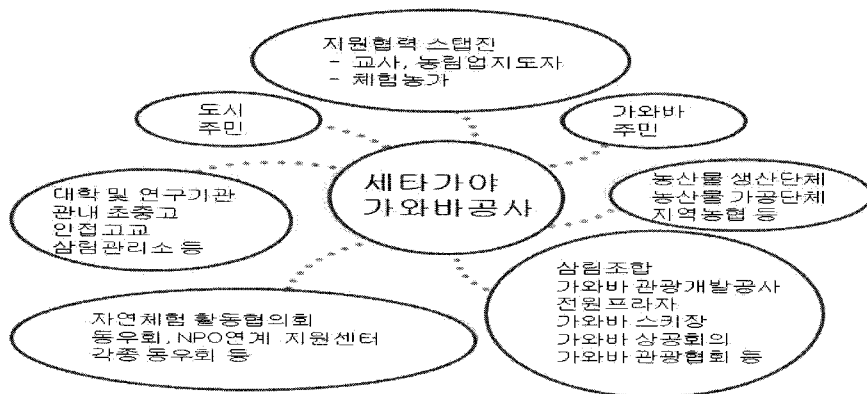


Figure 2 (주)고향공사의 협력체계도.

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건강촌 간사회와 추진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간사회는 세타가야구 담당직원, 가와바촌 담당직원, (주)고향공사 직원으로 구성되어 월1회 개최하고, 추진회는 간사회 구성원에 세타가야구 부구청장과 가와바촌 부촌장이 포함되어 1년에 1회씩 세타가야구와 가와바촌을 오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IV. 도농교류 사업성과

가와바촌과 세타가야구가 도농교류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와바촌은 촌(村)(지방공공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규모의 가장 작은 규모)단위의 행정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도농교류의 성과로 자립형 경쟁력을 구축했다⁵⁾. 그 결과 가와바촌은 일본에서 2005년까지 이루어진 지방공공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합병 정책에 의해 약 3,000개의 단체가 약 1,400개로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촌(村)단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산업의 활성화이다. 세타가야구민에 의한 가와바촌의 농산물 구입 증가, 농산물직판 확대, 체험농업 등으로 소득증대와 전업농가 증가로 농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가와바촌에는 농업계승자 15명을 비롯하여 전업농가가 2000년 44가구에서 2005년 55가구로 증가되었고 이는 2009년 가와바 쌀이 전국에서 2000품종이 출품된 대회에서 10위 안에 입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농촌지역에 도농교류 거점시설과 (주)고향공사, 전원프라자와 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전원프라자, 가와바스키장 등 관광시설 건설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켰다. 특히, 전원프라자의 건설은 겸업농업의 판로개발, 상

업의 활성화, 새로운 지연산업의 개발 및 판로촉진, 지역주민의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교류의 장, 지역정보 발신 등의 역할을 하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를 탄생시켰다. 전원프라자는 가와바촌과 (주)고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하고 주식회사 전원프라자가 위탁 운영하는 지역의 산업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휴식처로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Table 5).

셋째, 농촌지역의 활력 증대이다. 30년 간 지속되는 교류는 구민과 촌민의 자주적이며 가족적인 교류로 발전하여 가와바촌으로 이주나 별장을 소유하는 세타가야구민이 생겼다. 또 이동교실, 사과나무 임대사업과 문화교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세타가야구민 145만명이(구민 1인당 평균 1.72회/년) 구민건강촌을 이용하는 등 교류인구의 증가와 기타 관광시설에의 유입으로 연간 7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역이 되었다⁶⁾.

세타가야구와 가와바촌은 상호협력협정체결 25주년 기념으로 새로운 협력사업의 발굴과 추진으로 지속적인 도농교류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1981년 상호협력협정 체결 이후 2005년 25주년 기념으로 두 지방자치단체는 유희농지의 활용, 저출산 고령화 대책, 농산촌의 매력 만들기, 안전한 농산물 제공, 경관보전, 산림환경보전 등 다양한 가치관의 만남과 창출을 기치로 5가지 새로운 사업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였다. 새로운 5가지 사업은 문화교류, 야산 관리 사업, 가와바 농산물 브랜드화, 농업 학교개설, 초가지붕 학교개설이다. 이는 우호의 산림·숲 사업을 한층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농경지 보전활동으로 수자원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등 후세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책임감 있는 사업과 행동이라 평가 할 수 있다.

Table 5 전원프라자의 주요시설과 기능

시설명	주요기능 및 역할
프라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와바촌의 방문객 센터 역할을 함 휴게, 관광안내소, 연수원, 조리공방, 관리사무소
우유 가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낙농가가 생산한 우유의 가공/판매 저온살균우유,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등 생산 판매(최대 800L/일)
고기 가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돼지고기(외지에서 조달)을 가공한 독일풍의 햄 소시지 가공 판매
맥주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맥주의 생산 판매(100kl/년)
farmers'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300호의 농가가 참여하여 농산물을 직판 년 1억5천엔 정도 매출
전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센터 등에서 지역의 특산물 등을 판매
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으로 직접 만든 메밀 등을 판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에 사과원, 포도원, 블루베리원, 국수집 등이 입지 겨울에는 스키 임대업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약 30년간 도농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선진사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도농교류 실현을 위한 조건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지속적인 도농교류 사업에 필요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타가야구는 구민들의 제2의 고향 만들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와바촌과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을 토대로 농촌과 상호협력·합자하여 도농교류 거점시설 건립과 거점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기업을 설립했다. 또 거점시설과 관리운영 기업이 그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조례 및 시행령 제정, 행정부서내 전담조직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농교류 사업을 30년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인 세타가야구는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기회 확대를 비롯하여 구민간의 교류, 농촌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해 구민들의 제2의 고향 만들기에 성공하였고,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제2의 구민건강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농촌인 가와바촌은 인구 감소의 둔화, 지역 생산물의 경쟁력 강화, 정기적인 도농교류에 따른 다양한 교류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교류인구의 증가, 농촌지역에의 관광시설과 새로운 기업들의 유입에 따른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었다.

본 사례는 동경이라는 대도시권에 위치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 농촌 또는 원격지 농촌의 도농교류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입지적·경제적 한계가 있으나 도시의 노력이 도농교류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관점에서는 주목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사례의 도농교류 사업내용 중 이동교실 프로그램 예처럼 도시와 농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동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시와 농촌의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도농교류의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조직이나 기업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양방향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도농교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과 전문조직·기업 조성 및 육성은 앞서 논의한 1인리더에의 과도한 의존과 주체형성의 미약, 기반구축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형성과 기반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례지역은 두 자치단체와 전문기업이 상호협력하에 도농교류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도농교류를 위한 다양한 교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이를 위한 지역 자원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영모델은 단순한 농박체험과 민박위주로 지역주민의 소득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경쟁지역의 급속한 증가로 지역적 독자성을 상실해 가는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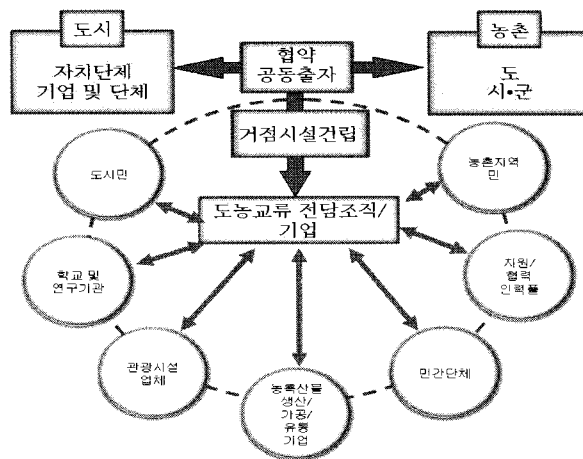


Figure 2 지속적인 도농교류의 전략과 요소들의 수평적 연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Figure 2”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협약을 토대로 공동출자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도농교류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도농교류 전담(사회적)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양방향성과 지속성을 지닌 도농교류의 여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담기업은 지역 소재의 학교, 관광시설, 농가와 민간단체 등을 수평적으로 연계해서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도농교류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공생해 가는 성공적인 사례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일본의 선진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하나의 사례지역에서 도출된 것으로 그것이 도농교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농교류에 대한 심도있는 실증연구가 지속되어 바람직한 도농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실천적 조건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 주1) 이웅진(2000)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의 현상과 과제, 관광연구 제15권 제2호(통권 제16호): 171-184.
- 주2) 縁組協定은 두 자치단체가 부부나 양자의 연을 맺는 결연 또는 혼인관계임.
- 주3) 구민건강촌 조성사업은 도시에서는 기대할 수 없게 된 맑은 공기, 풍부한 삼림, 깨끗한 계류, 풍부한 동식물 등의 자연과 접하면서, 구민의 건강증진, 야외휴양활동의 장소 제공과 더불어 사람과 사람(구민간의 교류, 구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교류)간의 교류를 통해 제2의 세타가야구민의 고향을 만드는 사업임.
- 주4) 세타가야구 담당자는 많은 후보지 중 가와바촌이 세타가야구 구민건강촌 조성대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첫째, 산촌·농촌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초등학교때 노래로 부른 고향 풍경이 남아 있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계곡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둘째, 아침에 출발해 점심 먹기 전에 도착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적 기반이 있고 농업, 등산, 자연탐방, 낚시,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건강촌 건설 및 관리에 대한 의욕이 높다는 것이다. 즉, 농촌지역 마을가꾸기 노선과 세타가야구가 상정하는 도농교류 노선에 잘 맞았다는 점 등이라 함.
- 주5) 가와바촌, 2008, 都市交流と協働のむらづくり 9쪽 인용.
- 주6) 가와바촌, 2008, 관광객 통계자료.

본 논문은 상지대학교 2007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문헌

- 1. 김병렬 등, 2000,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 2. 김성태, 2006,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육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18, 43-57.
- 3. 박진도 등, 2005, 농촌개발의 재구성, 한울아카데미, 157-164.
- 4. 소순열, 2006, 도농교류 : 도시·농촌의 대립해소법, 더불어 사는 전주, 전주시청.
- 5. 안세길, 2008, 농촌관광의 서비스품질의 만족도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12(1),

- 49-68.
- 6. 오현석 등, 2004, 도농교류활동의 유형화와 발전방향, (주)명진씨엔피, 94-100.
- 7. 유정규, 2006, 도농상생을 위한 도농교류의 의미와 활성화 전략, 지역재단 창립2주년 기념심포지엄, 1-34.
- 8. 윤유식, 지경배, 2008, 농촌관광마을 방문객 선호프로그램과 방문만족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0(1), 327-251.
- 9. 이웅진, 2000,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현상과 과제, 관광연구, 15(2), 171-184.
- 10. 임경수, 2005, 도농교류의 현황과 과제, 계간 농정연구 통권 14호 농정연구센터, 117.
- 11. 임상봉, 2004, 도농교류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농어촌 연구원, 1-198.
- 12. 정기환, 2003, 농촌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추진방향, 한국농업정책학회 2003년 하계심포지움.
- 13. 차동욱, 2007, 5일장을 이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요인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4(1), 86-108.
- 14. 石田憲治 등, 1995, 농촌환경정비의 과학, (사)농촌환경정비센터, 朝倉書店, 동경, 8.
- 15. 世田谷区, 川場村, 2003, 区民健康村のあゆみ, 동경, 영화인쇄주식회사, 1-20.
- 16. 世田谷区, 川場村, 2007, 区民健康村 관련 행정자료.
- 17. <http://www.furusatokousha.co.jp/profile/images/keieihouku22.pdf>.
- 18. http://www.maff.go.jp/j/nousin/kouryu/kyose_tairyu/k_kyotai/index.html.
- 19. <http://blog.naver.com/hso7004?Redirect=Log&logNo=70024879735>.

접 수 일: (2010년 2월 8일)
 수 정 일: (1차: 2010년 2월 25일, 2차: 3월 16일
 3차: 3월 23일, 4차: 3월 27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27일)
 ■ 3인 익명 심사필